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앞과 뒤도 없이 그냥 걷는 길이 불법

15면에서 계속

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유체가 한 걸음에 강을 뛰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을 뛰어 놓을 때, 한 걸음을 뛰어 보아 우리가 부처님 자리에 한도량에 든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으로 뛰어 보아 한도량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정신계의 문제나 물질계의 문제가 같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 하고 그냥 간다. 그런데 모두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가 뭐든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죠? 차가 여러분이라면 말이 됩니까? 차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소 자체가 보이지 않는, 환이 없는 나가 사용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즉 달하자면 시자로 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차 쓰듯이요. 그런데 나라고 그러다면 그게 말이 안되죠. 반드시 주인이 있는데 차가 자기라고 그러니까 핀트가 맞지 않아요. 모두가 사는 게. 그래서 과거로부터 선조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음이라도 진실하게 있으면 몰라도요.

말을 가지면 그냥 아무데라도. 돌아갈 때 믿고 한다면. 그게 아주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돌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고집 부리는 거는 멍청한 일이지요. 우리가 고집이 세고 아주 괴롭고 망중스럽게 산다.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누르고 삽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고 사는 데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 컴퓨터로 세우는 극락

그런데 우리는 복두철성으로 인해서 그 양분이, 큰 별이 생명력을 예상초에, 최초로 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마음에 원소 자체에서 모두 여러분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살게끔 해 놔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악을 쓰고 그러는 데도 그게 자기가 악쓰는 건데 자기가 악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말하자면, 부속이나 마찬가지로,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왜 너는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러는 나. 악쓰지 마라. 너는 악을 써도 소용없고 악 쓰는 거기에 전부 미련 없이 해 가지고 나가는데 왜 너는 악을 쓰고 소릴 내고 크게 문제를 삼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길 치고 길 아닌 데가 하나도 없다. 허공도 길이요, 지구도 길이요. 우주도 길이다. 우리가 몸통을 생각할 때, 한번 지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몸과 같습니다. 생명체들이 알뜰알뜰 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든 살고 있나. 몸속에서는 그러죠. 몸속에 들어 있으면서 의식들은 '아이고, 우주에서 지금 사람이 내렸으니까 그대로 마음을 합쳐 드러야지'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사람이 마음 쓰는 대로, 도둑질을 하면 하는 대로, 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대로 의식들이 따라 옵니다. 참 문제가 큼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자기 모습은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인한테, 주처에 맡겨 놔라. 일할 때는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고 또 걸거리를 다닐 때는 입선이고 누웠을 때는 와선입니다. 그것이 조금도 그른 사이가 없이 요만큼도 틀어 안 나게끔 돼 있다. 그게 그냥 참선이다. 여러 가지로 따질 게 없이, 그래서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도지, 우리 생활 떠나면 뭐가 있느냐. 내가 떠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모두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진리도 있고 부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예고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모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맣고 부실한 거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르고 산다. 또는 우리가 누르는 거는 우리 자체가 바로 불성 자체,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그냥 거기 들어 있다. 그러니까 적으나 크나 차원이 높으나 알으나 그거를 알고 진행한다 하면은 그냥 자기가 크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쉬우면 꺼내 쓸 수 있는 거, 전력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에너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문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컴퓨터를 눌렀을 때 이걸로도 변하게 하고, 이걸로도 나오게 하고 저걸로도 나오게 하고 부산으로도 갔다가 제주로도 갔다가도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뺏길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이 아주 성스럽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간으로서 활짝 벗어났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도 '나'라고 하고 당치 않은 어기장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따진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거들거들 고생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40이 넘고 50이 되더라.



그림 · 최추현

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나왔고 진리에서 진화가 됐고 진리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간으로서 활짝 벗어났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도 '나'라고 하고 당치 않은 어기장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따진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거들거들 고생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40이 넘고 50이 되더라.

부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갈 때도 나가는 문이 없고 들어올 때도 들어오는 문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게 자제권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제하더라.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권리가 있다. 어디든지 가서 같이 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분류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바꿀 수가 있다.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 바꿀 수

공부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살아가는 어려움에 너무나 많이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마음에 끄달림이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 '관'이 주장자이자 불성

스님: 그렇게 나같이 미련스럽게 사시란 말입니다. 나같이 미련하게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많은 걸 그냥 하나로 통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사실 없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지 않게 살려면은 그렇게 해도 해야 복잡하지 않지, 이거는 그냥 어중이떠중이 일어난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하더라도, 생각으로 통괄해서, 어느 곳이나 내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만 부처를 한데 합쳐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일체를 다 뺏은 사이 없이 통괄해야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지 않죠. 만약에 세에서 집어 넣으려면 모르는 높은 복잡해서 못 살아요. 셀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아주 나같이, 쫄 나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질문4: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삼배를 올리는데 금하면 일배를 올리되 통괄해서 올리고 통괄해서 놓으라구요. 여러분이 5년, 10년이 됐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니요. 왜 법당에 들어오면 저 부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나 같습니까? 허리띠를 너무 꼭 매면 체하기 쉬우니까 조금 느슨하게 매 놓으시되 흘러내리지만 얇게 하고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지 모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꼭 매야 하겠지만요.

질문4: 열심히 정진하면서 나름대로 세속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정직하게 마음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공부를 접하기가, 인생과 현재의 생활이 차이나 변화가 없고

## 자기가 결정 말고 주인공에 맡겨라 세울게 없는 나 아닌 나가 바로 부처

50이 돼서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 봐야지 하다 보니까 머리가 벌써 허영게 늙었더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그냥 에너지로 원소가 있었다면 그 구석구석 모를텐데, 부모의 은공으로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이렇게, 너는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서야 하며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고 했는데, 높은 것도 잘 모르고 낮은 것도 잘 모르고 자는 것도 잘 모르더라.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거지 죽은 뒤에 공부가 되느냐 이겁니다.

### 들고나는 문 따로 없어

부딪침이 있어야 공부가 되죠. 상대가 있어야 공부가 되죠. 그래서 죽은 영들은 왜 그렇게 해 놓고 공부를 시키게끔 하느냐. 자손들이 화장을 해서 탑에다 모신다면 그 자손들이 공부하는 대로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잠시 잠시 들고 날수가 있거든요. 병 속에서 나가듯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자손들이 그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벌써 병을 다

있는 세상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뱀이나 개구리, 뭐 다른 짐승이라 할지라도 서로 접촉도 안 해 봤는데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저항력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쪽도 단단히 겨냥을 하고 저항력을 느끼죠.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될 수 있어야만 된다. 여자를 건지려면 여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고 참녀를 건지려면 참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닥치는 대로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복잡하고 쫄쫄하게 들지 마시고 좀 간편하고 쉽게, 느슨하게 좀 풀어놓으세요. 허리띠를 너무 꼭 매면 체하기 쉬우니까 조금 느슨하게 매 놓으시되 흘러내리지만 얇게 하고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지 모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꼭 매야 하겠지만요.

질문4: 열심히 정진하면서 나름대로 세속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정직하게 마음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공부를 접하기가, 인생과 현재의 생활이 차이나 변화가 없고

가짜본 인연을 보듯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인 288쪽  
값 6,000원  
여시아출